

11/29/20

설교 제목: 야곱과 에서의 상봉

전하는 이: 김순배 목사

말씀: 창세기 33 장 1-20 절

1. 야곱이 눈을 들어 보니 에서가 사백 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2.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3.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일곱 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4. 에서가 달려와서 그들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5.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 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6. 그 때에 여종들이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아가와 절하고
7.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아가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아가와 절하니
8.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9.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네 소유는 네게 두라
10.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뵈온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11.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하매 받으니라
12.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13.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 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을즉 하루만 지나치게 물면 모든 때가 죽으리니
14.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 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15. 에서가 이르되 내가 내 종 몇 사람들 네게 머물게 하리라 야곱이 이르되 어찌하여 그리하리이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하매

16. 이 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17. 야곱은 숙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숙곳이라 부르더라

18. 야곱이 밧단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19. 그가 장막을 친 발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백 크시타에 샀으며

20.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엘로헤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하나님께서서는 베엘에서 언약하신대로 야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본문은 야곱이 형 에서와 상봉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의 행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압복강 가에서 밤새도록 하나님과 겨루어 하나님을 이기고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아낸 후 압복강을 건너 먼저 보냈던 식구들과 합류했습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 보니 에서가 사백 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자신을 향해 오고 있습니다.

야곱은 어제 밤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고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아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을 지켜주실 것을 믿고 압복강을 건너오긴 했지만 막상 형 에서가 사백 명이나 되는 장정을 거느리고 오는 것을 보니 다시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야곱은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여 식구들을 정렬시킵니다.

1. 야곱이 눈을 들어 보니 에서가 사백 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2.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맨 앞에 여종 출신의 아내 빌하와 실바 그리고 그들이 낳은 아들들을 세우고 그 다음으로 레아와 레아가 낳은 여섯 아들과 딸 디나를 세웁니다.

그리고 맨 뒤로 라헬과 라헬이 낳은 아들 요셉을 세웁니다.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과 라헬이 낳은 아들 요셉을 맨 뒤에 두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약속대로 지켜주실 것을 믿고 나아가지만 형 에서가 자신을 해할 경우를 대비하여 처자식들을 자신이 아끼는 순서대로 배치한 것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믿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사람이 한 번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고 해서 단번에 온전한 믿음을 갖게 되지 않습니다.

온전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 고난과 훈련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단련받아야 합니다.

그렇지라도 야곱이 확실히 달라지긴 했습니다.

지난 번 압복강에서와는 달리 자신이 선두에 섰습니다.

3.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일곱 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야곱은 형 에서 앞으로 나가면서 일곱 번이나 허리를 굽혀 절을 합니다.

드디어 에서와 야곱이 20 년만에 형제 상봉을 합니다.

4. 에서가 달려와서 그들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에서가 먼저 달려와서 동생 야곱을 부둥켜 안고 입을 맞추고 두 형제는 서로 눈물을 흘립니다.

야곱은 형 에서가 자신을 용서하고 이렇게 환대해 주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 개입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에서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야곱을 측은히 여기도록 하셨습니다.

그동안 야곱을 짓누르고 있었던 두려움과 무거운 멍에가 벗겨져 나가는 순간입니다.

야곱은 언약을 지켜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감사함으로 가슴이 벅찼을 것입니다.

뜨거운 상봉을 마친 후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그들의 자식들을 보고 야곱에게 이들이 다 누구냐고 묻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은혜로 주신 자신의 처자식들이라고 하며 그들을 소개합니다.

5.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 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6. 그 때에 여종들이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아와 절하고

7.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아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아와 절하니

야곱은 처들과 자식들을 정렬한 순서대로 나아와 절하게 합니다.

먼저 레아의 여종 실바와 그가 낳은 두 아들 갓과 아셀 그리고 라헬의 여종 빌하와 그가 낳은 두 아들 단과 납달리 모두 여섯이 나아와 절하게 하고, 그 다음으로 레아와 그가 낳은 여섯 아들들 루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잇사갈 스불론과 딸 디나가 나아와 절하게 하였으며 마지막에 라헬과 그가 낳은 아들 요셉이 나아와서 절하게 하였습니다.

야곱의 처자식들을 소개받은 에서는 이번에는 가축 떼에 대해 묻습니다.

야곱은 그것은 형님께 은혜를 입고 싶어서 드리는 예물이라고 대답합니다.

8.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나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다

9.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네 소유는 네게 두라

10.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데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뵈온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다

11.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하매 받으니라

야곱의 예물에는 형에게 지난 날의 잘못을 사죄하고 용서받기를 원하는 마음과 함께 형 에서가 받아야 할 복을 자신이 가로채 받은 물질적인 복에 대한 보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에서는 그것들을 받지 않겠다고 사양합니다.

에서는 야곱보다 훨씬 부자였습니다.

거부인 아버지 이삭의 것이 다 에서의 것이 되었으므로 물질적으로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라도 야곱은 자신의 예물을 받아 주기를 간절히 청합니다.

야곱은 형님의 얼굴을 뵈니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다고 하며 예물을 받아달라고 합니다.

이 대목을 보고 야곱이 지나치게 형 에서에게 아부를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으나 전 야곱이 진실로 형 에서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야곱은 전날 밤 압복강 가에서 밤새도록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고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명명하였습니다.

브니엘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붙인 것은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도 죽지 않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전날 밤 그런 특별한 은혜를 체험한 야곱의 머릿 속은 그 일로 가득 차 있었고 그의 가슴은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로 복받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또 형 에서로부터 특별한 은혜를 받습니다.

지은 죄로 인해 죽을 수 밖에 없는 자신이 용서를 받아 죽지 않고 산 것입니다.

야곱은 자신을 용서하고 살려준 형 에서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형상 곧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본 것입니다.

야곱의 강권에 에서는 야곱이 준비한 예물들을 기꺼이 받아 주었고 야곱은 형에 대한 마음의 큰 짐을 덜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에서는 야곱에게 자신이 살고 있는 세일로 같이 갈 것을 권합니다.

세일은 사해 아래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에게 먼저 가라고 자신은 천천히 뒤쫓아 가겠다고 합니다.

12.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13.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 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을즉 하루만 지나치게 물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14.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 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구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15. 에서가 이르되 내가 내 종 몇 사람들을 네게 머물게 하리라 야곱이 이르되 어찌하여 그리하리이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하매

야곱은 형 에서에게 아직 자식들이 어리고 짐승들이 새끼가 딸려 있어서 형님과 보조를 맞출 수 없으니 앞서 가시라고 그러면 자신은 천천히 처자식들과 가축을 데리고 뒤따라 가겠다고 합니다. 그 말에 또 형 에서가 자신의 종 몇을 머물게 하겠다고 하였으나 그것조차 정중히 거절합니다.

그날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숙곳에 도착했습니다.

‘숙곳’은 요단강 동편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니 야곱은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은 것입니다.

16. 이 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17. 야곱은 숙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숙곳이라 부르더라

야곱은 숙곳에 자신을 위한 집과 가축들을 위한 우릿간을 짓고 머물렀습니다.

야곱이 얼마나 오래 숙곳에 머물렀는지는 알 수 없으나 자신을 위한 집과 가축들을 위한 우릿간을 지은 것으로 보아 상당한 기간을 그곳에서 머물렀던 것 같습니다.

그후 야곱은 가나안 땅 세겜으로 갑니다.

18. 야곱이 밧단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19.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백 크시타에 샀으며

20.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엘로헤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야곱은 세겜 성읍에 이르렀고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로부터 백 크시타에 샀습니다.

세겜 일대는 구릉지로서 목초지가 잘 발달하여 목축을 하기에 아주 적합한 곳이었기 때문에 야곱이 이곳에 정착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야곱은 그곳에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엘로헤이스라엘’이라고 명명했습니다.

‘엘엘로헤이스라엘’이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라는 뜻입니다.

야곱이 그곳에 단을 쌓았다는 것은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니었습니다.

야곱이 단을 쌓아야 할 곳은 세겜이 아니라 벰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벰엘에서 언약을 주셨을 때 야곱은 자신에게 나타나 언약 주신 하나님을 위하여 벰엘에 하나님의 전을 세우고 십일조를 바치겠다고 서원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서원을 들으신 하나님은 20 년간 밧단아람에 머물고 있던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벰엘의 하나님이라. 네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네 출생지로 돌아가라'고 명하셨습니다.

(창 31:13) 나는 벰엘의 하나님이라 네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 곳을 떠나서 네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야곱은 자신이 서원하고 하나님이 명하신대로 벰엘로 올라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세겜에 와보니 넓고 푸른 초장이 펼쳐져 있어 가축을 기르기에 적합한 지라 그곳에 정착을 하고자 한 것입니다.

야곱은 형 에서와의 문제가 해결되자 또 다시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뜻 곧 자신의 생각과 욕심을 좇아 살고자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후에 이런 야곱을 징계하셔서 그가 벰엘로 올라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십니다.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다는 말이 있습니다.

위급할 때는 그 일만 해결해 주면 얹어져 절이라도 할 듯하다가도 급한 불을 끄고나면 언제 그랬더냐는 식으로 외면하는 것을 가리켜 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인간들에게는 통할지 몰라도 하나님께는 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을 반드시 이루어내시는 분이십니다.

만약 인간이 언약을 잊어버리거나 지키지 않아 당신의 언약을 이루어낼 수 없는 상황이 되면 당신이 직접 개입하여 당신의 방법으로 언약을 이루어내시고 맙니다.

그것이 때로는 징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을 동원해 강권으로 언약을 성취하시기 전에 스스로 알아서 언약대로 행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우리에게 고난과 훈련의 시간만 길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반면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그것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고자 하면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로 복을 주셔서 반드시 주신 언약을 이루어내도록 하십니다.

인생 짧습니다.

쓸데없이 고난과 훈련의 시간만 늘리지 말고 속히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언약대로 행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삶을 누리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